



‘2013 페스티벌 오! 광주-정음성축제’ 개막공연에서 연주하는 광주시립교향악단. <광주문화재단 제공>

### 광주, 전시 강세·무용 저조 ... 전남, 무용 강세·연극 저조

#### 2014 문예연감 들여다보니

지난해 광주·전남의 문화 성적은 몇 위나 될까.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지난 2013년 한해 동안 서울과 세종시를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에서 열렸던 공연, 전시 등 문화행사를 분석한 ‘2014 문예연감’을 펴냈다. 지역별 비교가 가능한 전시, 연극, 무용, 양악, 국악 등 5개 분야를 분석했다.

◇연극·무용 부진한 광주=지난 2012년과 비교했을 때 광주의 전시와 양악 부문은 성장세를 보였지만 국악, 무용, 연극의 성적표는 그리 좋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광주에서 열린 전체 전시는 모두 651건으로 서울(6824), 경기(1089), 대구(790)에 이어 많은 전시가 열린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의 전국 대비 전시비율은 2012년 4.4%에서 지난해 4.9%로 증가했다.

광주는 양악 부문에서 해마다 크게 성장하고 있다. 2009년 176건이던 양악 공연은 2012년 208건, 지난해 300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횡수에서도 2009년 191회에서 지난해 310회로 크게 늘었다. 인구 10만 명당 공연 건수도 광주는 20.73건으로 서울(28.06)과 부산(22.62)에 이어 세 번째로 좋은 성적표를 받았다.

무용과 연극 부문에서는 ‘무향’ 광주라는 이름이 초라할 정도였다. 지난해 광주에서 열린 연극은 부산(207건)의

#### ■ 2013 광주·전남 문화 행사

	전시	연극	무용	양악	국악
광주	651건	429회	33회	310회	112회
전남	199건	277회	93회	211회	204회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00건으로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중 12위를 기록했다. 지난 2011년에는 119건, 2012년에는 111건의 연극이 각각 광주에서 열렸다. 지난해 열린 연극 공연 횟수도 지난 2011년(990회)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29회로 나타났다.

무용 부문에서도 광주는 지난해 모두 24건(33회)의 공연으로 전국 10위에 머물렀다. 광주의 인구 10만 명당 무용 공연 건수는 2009년 1.96건, 2012년 2.38건에서 지난해 1.63건으로 줄었다.

광주의 국악 공연은 지난해 89건으로 2012년에 비해 1건 감소했지만 횟수는 다소 늘어난 112회로 조사됐다.

◇전시·연극 급감한 전남=지난 2012년 서울을 제외한 도시 중 공연 건수에서 1위를 차지했던 전남의 국악 부문은 다소 주춤했다. 지난해 국악 공연 건수는 167건(204회)으로 전국에서 서울(505)과 부산(196)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이는 2012년 226건(275회)에 비해 많이 줄어든 수치다. 하지만 10만명당 국악 공연 건수는 8.76건으로 전국 1위, 횟수는 10.7회로 서울(14.95회)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전남에서 지난해 열린 무용 공연은 87건에 93회로 이는 서울(721건, 2104

회), 부산(229, 269), 경기(119, 161)에 이어 4번째로 많은 수치다. 전남은 인구 10만 명당 무용 공연 건수에서도 4.56건으로 서울(7.11)과 부산(6.49)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공연 1건당 공연 횟수는 1.07회로 대부분 단발 공연에 그쳤다.

지난해 전남에서 열린 양악 공연은 모두 205건(211회)으로 전국 11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2년 211건, 234회에 비해 다소 줄어든 수치다. 10만 명당 양악 공연 건수는 10.75건, 횟수는 11.06건으로 각각 10위에 머물렀다.

전남의 연극 공연 횟수는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전남에서 열린 연극 공연은 105건으로 전국 10위, 공연 횟수는 277회로 전국 14위로 나타났다. 인구 10만 명당 연극 공연 건수와 횟수에서도 전남은 5.51건에 14.52회로 각각 13위와 15위로 분석됐다. 전남의 10만 명당 연극 공연 횟수는 지난 2009년 5.83건에서 2010년 6.70건, 2011년 7.79건, 2012년 10.79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가 5년 만에 급감했다.

전시는 지난해 199건으로 17개 시도 가운데 11위로 조사됐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чит술 갈아 은박지에 눌러 쓴 김남주 옥중詩 2편 첫 공개

‘단식’ ‘일제히 얼굴을 보기...’ 고형렬 시인, 에세이에 수록

“단식이 시작되었다/ 거울에서 솟을 빼앗기 때문이다/ 얼음장 같은 바닥 위 등짝 밑에서/ 담요를 빼앗기 때문이다/ 주먹밥이 작아지더니/ 주먹밥에 박힌 콩알 수가 적어지더니/ 한 주에 한번씩 나오던 엄지발가락만 한/ 돼지고기가 만나왔기 때문이다”

(김남주 ‘단식’ 중)

해남 출신 ‘저항 시인’ 김남주(1945~1994년)가 옥중에서 쓴 시가 공개됐다.

후배인 고형렬 시인은 최근 펴낸 자전적 에세이 ‘등대와 뿔’(도서출판b)에 김남주 시인이 옥중에서 은박지에 눌러 쓴 시 ‘단식’과 ‘일제히 거울을 보기 시작한다’를 소개했다.

고 시인은 “남주 형이 죽기 몇 달 전에 제가 일하고 있던... 출판사 사무실에 눌러 왔는데 그때 제게 준 것”이라면서 “20년 동안 마음 속 깊이 간직하고 있다가 20주기인 올해 세상에 처음 공개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형이 옥중에 있을 때 은박지에 눌러 쓴 시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본적은 없었는데 처음 보고 깜짝 놀랐다”면서 “은박지에 썼지만, 글씨가 반듯반듯하고 띄어쓰기가 정확했다”고 말했다.

또 “편지 봉투만 한 크기의 은박지에 시가 딱 차있는 것을 보고 눈물이 났다”면서 “чит술을 부러뜨려 한쪽을 갈아서 날카롭게 만든 뒤 은박지에 눌러 쓴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너랑 나랑’ 춤장댄스 플래시몹 프로젝트 열린다

8~12일 오후 4시 광주 금남로 광장

2014 춤장축제 기간(8~12일) 금남로 광장에서 매일 오후 4시 ‘춤장 댄스’ 플래시몹 프로젝트가 열린다.

동구청은 이번 축제에 앞서 가수 율라라세선과 함께 주제곡 ‘너랑 나랑’을 제작했으며, 조이댄스아카데미가 이 음원을 이용해 플래시몹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조이댄스아카데미는 앞서 동부경찰서, 전남대, 춤장우체국, 유·스퀘어 등에서 각각 주제를 정해 춤장 댄스 플래시몹 투어 프로젝트를 진행, 홍보 영상 제작했다.

전남대 편은 세계인과 함께 축제를 즐기자는 취지로 외국인들과 함께 진행했으며, 유·스퀘어 편은 ‘백두 파워 점프’ 출렁기 퍼포먼스 팀과 함께 바쁜 일상을 털어버리자는 의미를 담아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는 EA 스포츠 행사 기간 중 마샬아트 퍼포먼스 팀과 함께 역동적이고 화려한 퍼포먼스를 했다. 우체국에서는 복고풍 퍼포먼스를, NC웨이브에서는 영화의 한 장면을 연상시키는 세련된 이미지의 퍼포먼스를 함께 진행했다.

오는 12일까지 금남로 광장에서 펼쳐지는 플래시몹 행사에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12일 빛고를 국악전수관서 청암전국고수대회

故 김성권 선생 예술정신 계승

제6회 청암전국고수대회가 12일 광주 빛고를 국악전수관에서 열린다.

BBS광주불교방송이 주최하고 (사)청암 판소리교보보존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명고수 청암 김성권 선생(사진·1943~2008)의 예술정신을 계승하고 국악신인

발굴을 위해 열린다.

대회는 명고부와 일반부, 청장년부, 임문부, 학생부로 구분해 실시된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정부 시상 지원을 받는 대회로 격상돼 교육부 장관상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이 각각 수여된다.

간직에서 태어난 김성권 선생은 15세 때 박선행 선생에게서 판소리교보 지도를 받



기 시작했으며, 18세 때는 정응민 선생에게 판소리 ‘심청가’를 사사했다.

27세 때인 1955년부터 호남의 명고수인 성원목 선생을 사사한 김성권 선생은 1991년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고법 예능보유자로 인정받았다.

문의 062-672-557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아이디어 이 피었습니다!

#### ●홍보지 및 판촉물

●전단지

●현수막

●상패

●상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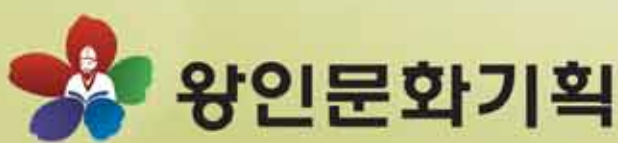
●전단지

●각종 인쇄물

●현수막

●각종 인쇄물

●홍보지 및 판촉물



왕인문화기획

Tel. (061)471-1717~1718

Fax. (061)471-1719

E-mail. ansqudtjs12@hanmail.net

